

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 녹십자와 면역항암제 공동 개발

기사입력 : 2016-10-21 00:50 | 수정 : 2016-10-21 08:48

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목암연구소와 공동연구 개발



바이오벤처 와이바이오로직스는 녹십자 목암연구소와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와이바이오로직스가 발굴한 항암면역항체와 목암연구소가 보유한 항암 치료 후보 물질을 활용해 병용 면역항암제 공동 연구에 나선다. 바이오벤처가 자체 개발한 원천 기술과 제약사의 신약 개발 노하우가 접목돼 새로운 신약 개발에 나서는 셈이다.

이번 공동 연구로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신규항체 발굴 기술을 인정받고 자체개발한 항체를 목암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와이바이오로직스의 항암항체후보 물질에 목암연구소의 항암 신약 연구개발 기술이 가세하면 새로운 면역항암제 개발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양사는 기대했다.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번 공동연구 협약으로 와이바이오로직스의 항체 발굴 기술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뛰어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목암연구소장은 "면역항암제는 기존 항암제 대비 우수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주목 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라면서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항암분야 R&D 역량 강화와 신약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승현 기자 sh1000@bios.co.kr

바이오스펙테이터

<저작권자 © 바이오스펙테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os.co.kr